

저의 경우는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싶다고 할 때 무심히 담배 피시겠습니까하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최근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자신들의 건강이 아거나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35세 이상의 남자들은 자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발전과 미래가 담배연기에 싸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이제부터)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내에서는 담배를 필수없고 공공장소에서도 피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장소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담배를 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한사람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것은 더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너무 사기 쉬워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언제나 담배를 피고 싶을 때 학교 앞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살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가게 주인들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팔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저의 의견은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공공장소나 학교 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장소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배를 파는 곳의 단속을 강조해서 쉽게 살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